

“광주 빙상계 재건에 사명감으로 임할 것”

박병석 신임 광주빙상연맹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서 포부 밝혀
“10년 뒤를 보는 행정 이끌 것
실업팀·학교팀 창단 연계 추진”

광주빙상연맹이 5년간의 회장 공백을 끝내고 다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지난 4월 단독 입후보로 연맹 회장에 선출된 박병석 회장은 30년 넘는 스포츠 행정 경험과 야구선수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 빙상계 재건에 나섰다.

박병석 광주빙상연맹회장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염주빙상장 내 연맹 사무실에서 지역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장 자리를 명예직이 아니라 사명직으로 받아들인다”며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건 현상이었다. 빙상장 훈련 여건, 장비 상태, 선수 안전, 훈련시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를 직접 점검했고, 지도자·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행정보다 현상이 빠르다. 지도자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실질적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빙상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병석 광주빙상연맹 회장이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염주빙상장에서 지역기자 간담회를 열고 빙상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상무초등학교가 유일한 빙상 육성학교이고, 중학교 이상으로 연계되는 빙상팀은 전무하다. 실업팀도 없는 탓에 우수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성덕중 장운우 선수가 서울 학교로 전학했다.

이에 박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 육성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아무도 남지 않는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이 광주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해 중·고교 빙상팀 창단을 제안했고, 현재 긍정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광주의 빙상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염주빙상장은 쇼트트랙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서울 등 외지에서 사비로 훈련하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시설 개보수와 더불어 선수들의 훈련비, 장비비 등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실업팀 창단’을 꼽았다.

그는 “실업팀이 없다는 건 선수에게 진로가 없다는 의미”라며 “선수를 길러도 지역에 남지 못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업팀 창단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6일에는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 대회인 ‘2025 광주광역시빙상연맹회장배 빙상대회(쇼트트랙)’가 열린다. 피

겨 종목은 11일 별도 개최된다. 1994년 시작된 회장배 대회는 회장 공석으로 5년간 중단됐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동호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연 2~3회 대회를 정례화하겠다. 대회를 열어야 시민들도 빙상에 관심을 갖고 지역도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 회장 선거 전 5년간 공석이던 탓에 인수인계 자료는 물론 사무국 직원도 없는 상태다.

박 회장은 “데이터베이스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있다. 임원진 자비로 운영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기업 후원 유치,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참여, 자체 후원회 구성 등 다각적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의 균형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생활체육 기반이 튼튼해야 엘리트 선수도 자란다”며 “유소년 체험교실 운영, 지역 체육프로그램 연계, 장학금 지원 등으로 균형 잡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5년간 멈춰있던 시간만큼 두 배로 더 열심히 뛰겠다”며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광주 빙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전남드래곤즈가 12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경남FC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 20라운드 홈경기에서 2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전남드래곤즈 정지용(가운데)이 지난 5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19라운드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1분 결승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는 모습.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드래곤즈, 내일 경남FC 상대로 홈 2연승 노린다

‘장흥군의 날’ 네이밍데이 물축제 홍보 등 이벤트 풍성



전남드래곤즈가 경남FC를 홈으로 불러들여 2연승에 도전한다.

전남드래곤즈는 12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경남FC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 20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 5일 19라운드 홈경기에서 리그 선두 인천유나이티드를 2-1로 꺾으며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전반 18분

알베르피의 선제골과 후반 41분 정지용의 결승골로 승점 3점을 추가한 전남은 승점 34점으로 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다.

20라운드 상대인 경남은 최근 5경기에서 4연패를 포함해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안산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는 끊었지만, 여전히 반등이 절실하다. 양 팀의 통산 전적에서는 전남이 19승 14무 12패로 앞서 있으며,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도 전남이 2승 2무 1패로 우세하다.

이번 홈경기는 ‘장흥군의 날’ 네이밍데이로 진행되며, 장흥군청과 장흥군체육회

등 다수 기관과 군민들이 단체 관람에 나선다.

장외에는 제18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되며, 오후 6시부터는 선수단 사인회가 열린다.

하프타임에는 ‘광양사랑 광양9경 O/X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정답자에게는 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권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영화관람권, 워터파크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될 예정이다.

전남이 지난 5일 인천전부터 19일 수원전까지 이어지는 홈 3연전의 두 번째 경기에서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현기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